신촌대학 불자학생 토크 "꿈 찾아요"

5월 21일 문화공간 숨도서 3차 신촌지역 연합법회

연대, 이대, 서강대 불교동아리서 서명원 신부 초청 연합행사 개최 20여 학생 모여 불교와 인생상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합법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서명원 신부에게 인생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행복보다 주변에서 느끼는 행복이 더 크면 주변의 기대에 맞춰야 할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도 부모님의 큰 기대로 의대에 진학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났고, 한국에 오게 됐죠. 40여년이 흘렀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기독교계 명문대학 내 불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법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서울 신촌 지역에 위치한 주요 3개 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불교학생회는 최근 매달 연합법회를 열고 있다. 5월 21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문화공간 '숨도'에서 열린 3차 연합법회에는 20여 명의 이들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함께 불교를 논했다.

연세대 불교학생회가 주최한 3차 연합법회는 이들과 비슷하게 가톨릭 신부로 불교학을 전공한 서명원 신부(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뤄졌으며 서명원 신부의 경험 중심의 1부와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불교동아리를 하는 만큼 이들의 불교에 대한 생각은 진지했다. 박동성 학생은 "다양한 종교에서 성과 속을 얘기한다. 불교에서는 깨달음, 열반, 해탈을 얘기하고 이를 위해 정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다.

서명원 신부는 "모든 종교나 철학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불교는 생사해탈, 기독교는 신과의 합일을 통한 영생이다. 현실은 사바세계지만 이러한 경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을 것이다"라며 "성과 속은 사실 구분이 없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성스러운 것들이 많다. 그런 성속 구분을 여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외에도 '사후세계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등 질문을 쏟아내며 높은 열의를 보였다. 특히 진로와 연관해 서명원 신부의 삶에서도 해답을 찾고자 했다.

정진실 학생은 "가족분들이 신부님의 의사생활로 행복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지 않았나"고 질문했고, 서 신부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지, 부모의 기대, 혹은 주변의 시선으로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서명원 신부는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겸손'이라고 하심을 강조했다. 서 신부는 "20대 때만 하더라도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만이었다. 돌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돌을 캐는데 돌은 캐도 캐도 나온다"며 "결국 불교수행은 겸손의 길이다. 달라이라마는 늘 배우려고 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게 40년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회에 이어 신촌지역 3개 대학 불교동아리들은 앞으로 매달 1회씩 특색있는 정기법회를 여는 등 다양한 연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공간 숨도 측도 법회 장소 제공 등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윤자명 연세대 불교학생회 회장은 "가까운 대학 불자 학생들이 자주 만나면 무엇을 해보고자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앞으로 점차 새로운 것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전 요약 학습서 '제경행상' 발굴

학습을 위해 경전의 중요 내용을 기록했던 학습서가 발굴됐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응 스님은 "독립운동가로도 활동했던 무불 남성관 스님이 필사한 〈제경행상〉상, 하권(사진)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경행상〉필사본은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이 경전의 중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학습서로 승가교육의 전통에서 생겨난 중요한 자료이다. 전통 강원에서는 이력과목을 학습하면서 주석서를 남긴 것이 전해오는데 이를 '사기(私記)'라고 하며, 〈제경행상〉도 사기의 일종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제경행상〉으로는 통도사 강원에서 필사본으로 전해오던 것을 1964년 유인본(油印本)으로 펴낸 것이 있다.

법응 스님은 "〈제경행상〉 전 권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기증해서 향후 전문적으로 연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금융인 자비 행보 중심으로 발돋움

금융감독원 불자회 5월 15일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금감원 불자회 회원들이 창립 20주년 기념법회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질서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금감원의 불자들이 불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발한 신행활동을 새롭게 서원했다.

금감원 불자회는 5월 15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법당 다보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박진해 금융감독원 불자회장(보험리스크제도실장) 등을 비롯한 20여 금감원 불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이두형 중앙신도회 부회장, 조기열 국회정각회직원불교신도회장, 이동빈 수협은행불자회 행장, 정광호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위원장 등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을 발원문을 통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불자들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힘든 미묘하고 아름다운 인연에 한량없는 감사를 올린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자들에게 달라"고 발원했다.

박진해 금융감독원 불자회장은 "금융기관 불자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교의 수승함을 널리 알리는 전법사가 되어가자"고 당부했다.

정광호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장은 "금감원 불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정신을 소중히 여겼기에 오늘 20주년 자리가 있었다. 금융인불자들이 서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정진해 지속적으로 불자회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불자회는 총 회원 50명으로 매주 화요일 금감원 내 법당에서 법회를 열고 있다. 첫 주는 묘각 법사를 지도법사로 법회를 열고 둘째주에는 108배, 셋째주에는 금강경 사경, 넷째주에는 참선을 하는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참선지도자협회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 5월 18일 강의

"이고득락 요익중생이 곧 佛法"

서광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본래 강의주제가 한국불교와 간화선이었지만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식(唯識)사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유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유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장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닦고 수련하는 것, 즉 눈멀게 닦고 수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유식을 모르고 좌선하는 것이 그렇다." 강원에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능엄경〉에도 미륵보살이 유식수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식관을 닦아 보살도를 성취했다고 말이죠. 명나라 고승이었던 감산대사는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으로 정리된다고도 했죠.

집착에서 비롯되는 심리장애 자각하면서 멀어질 수 있어 유식수행으로 고통 벗어나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유식이 뭔지는 몰라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대체 유식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유식은 인도의 세친보살이 쓴 〈유식삼십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불교의 핵심가르침을 30개의 게송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유식사상은 1대 미륵보살이 〈유가사지론〉을 저술하고, 2대 무착보살, 3대 세친보살로 이어지면서 정립됐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불교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핵심가르침은 바로 이고득락(離苦得樂) 요익중생(饒益衆生)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체득하고, 그 다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뒤 모든 이에게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목표가 없다면 애초에 수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담아낸 것이 〈유식삼십송〉입니다.

그래서 〈유식삼십송〉은 앞서 말씀드린 이고득락 요익중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번뇌장인데요. 요즘말로 표현하면 정서장애에 해당합니다. 정서가 오락가락하고 어지러울 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지장으로 인지장애입니다.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유식에서 정서장애는 스스로에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휴식하지 못해 해탈열반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인식장애는 대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가 손상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너와 남을 둘러싼 환경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유식삼십송〉은 1송에서 25송까지 어떤 구조로 심리가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26송부터는 우리가 경험하는 앎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부 식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알아보는 데까지 5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단계가 자량위(資糧位)입니다. 이후로 가행위(加行位), 견도위(見道位), 수습위(修習位), 구경위(究竟位)가 있지만 첫 단계만 온전하게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셨으면 합니다.

자량위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사념처 수행이 필요합니다. 신수심법을 자각하면서 나를 이롭게 합니다. 그 다음은 타자를 이롭게 하는 사섭법입니다.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同事)죠. 이는 점차 사무량심으로 이어지고 육바라밀 수행으로 거듭납니다.

어느 순간 괴롭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갖는 느낌과 생각, 판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각하고 내려놓으면서 자유로워졌으면 합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www.smilebangsu.co.kr NAVER 스마일방수 검색

지긋지긋한 방수공사
완·벽·시·공

원각사 정대스님이 적극 추천





주택/아파트/빌라/공장 등 건물바닥/벽체 방수 전문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자부심

스마일방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253-23번지

- 비 새는 곳 100% 방수 시공 전문
- APT, 주택, 거실, 방, 베란다, 천정, 크랙, 누수 전문 방수 공사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및 실내 에폭시 방수 전문
- 폴리 그라우팅(인잭션 방수)

시공 문의 051)754-0469 · 010-8534-9197

부산일보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제 22403호 19

현장서 쌓은 방수 시공 기술력 '국내1인자' 자부


스마일방수의 오상순 사장은 "하자보수의 핵심은 신용과 성실"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수영구 스마일방수는 20년간 방수 분야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한 분야에서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이다. 현장에서 쌓아 올린 시공 노하우가 경쟁력인 셈이다.

스마일방수 오상순(60) 사장은 "20년 현장을 누볐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웬만하면 누수 지점이 어딘지 감이 온다. 건축물의 기본구조를 파악하면 누수 시나리오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스마일방수를 창업한 오사장은 창업 전에 대우건설 A/S팀 등에서 일하며, 현장의 기술력을 쌓았다.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던 분야가 아파트 누수를 잡는 방수 기술이었다고 한다.

직접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오사장은 "수요는 무한한데, 이때만 해도 방수분야에 정통한 기술자가 없었다. 나만의 기술을 시장에 보여주고 평가받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창업으로 바빠졌지만,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오사장은 자평하고 있다. 실수 없는 방수작업 뒤 의뢰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보람이 크다고 한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방수 분야 기술 하나만은 '국내 제1인자'라는 자부심도 생겼다.

스마일방수 고객 대부분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오 사장은 금전적인 문제보다 완벽한 시공을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방수전문 시공만을 고집하며, 한 분야를 파고들어 노하우를 쌓은 것도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첨가약제와 자재는 특별한 것을 사용하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 방수시공이 실패할 때는 비용을 안 받거나 전액 환불해준다.

스마일방수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 등 모든 건축물을 시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공 때에는 폴리그라우팅인젝션 기법과 'WS4000 1액형' 지수발포약제를 사용한다. 벽체와 천장 균열보수 및 외벽 방수는 그라우팅기법, 옥상 방수는 우레탄시공(도포), 실내주차장과 공장 바닥은 에폭시 기법으로 시공한다.

또 통상 평당 10만 원짜리 옥상 우레탄 시공엔 하도·중도·상도의 도포를 하지만, 스마일방수는 반드시 4차례의 도포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도포 작업엔 햇빛 방지용 탑코팅제를 반드시 발라줘 완전한 방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오 사장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꼼수는 부리지 않는다"며 "신용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백상 기자